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聞

발행인 高長權 주 간 安成洙
부주 간 高榮哲 편집장 鄭龍卜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 1번지
전화: 54-2278~9 / FAX 56-2204
전신: 한라일보사

제520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5년 3월 15일 수요일

1

총학생회 오는 23일 공식 출범

새내기환영 및 출범식행사내용 대폭 달라져

20일 중강당서 '제주대학교 위상에 대한 대토론회' 개최

"95희망 Message-시작, 그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총학생회(회장 송창운 행정 4)에서는 3월13일부터 23일까지 새내기환영기간으로 설정 각종행사를 개최하고 오는 23일에는 공식출범식을 갖는다.

신입생환영제 행사는 2부로 나눠 실시되는데 13일부터 17일까지는 예비행사로, 20일부터 23일까지는 본행사로 나눠 진행하게 된다.

예비행사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예비행사로 새내기 노래한마당, 길거리 농구대회-덩크슛 등의 단과대학별 예선이 펼쳐지며 3차례에 걸친 초청강연도 마련되고 있다. 마산·창원노동조합연합회 선전부장 문용포씨 초청 '민주노동정권에 대하여'란 강연을 시작으로 같은날 방 송작가 송지나씨 초청 '방송의 세계' 강연이 많은 학우들의 관심속에 진행됐다. 또한 오는 16일에는 '정보화의 중심이 될 제주도'란 주제로 백두관 시청각실에서 임재운(통신학과교수)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본행사

본행사는 20일 법정대 중강당에서 '세계화·지방화시대의 제주대학교 위상에 대한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조문부(행정학과)교수의 기조발표를 시

◇ 새내기 환영제 및 총학생회 출범식 행사일정표

날짜	행사명	장소/시간
16일	초청강연-정보화의 중심이 될 제주도	백두관 시청각실/오후 2시
20일	세계화·지방화시대의 제주대학교 위상에 대한 대토론회	법정대 중강당/오후 2시
	영화제-다큐멘터리 '우리는 전사가 아니다'	백두관 시청각실/오후 2시-5시
	열린공간(희망노래)	한라터/오후 1시
21일	영화제-다큐멘터리 '결혼전 이야기'	백두관 시청각실/오후 2시-5시
22일	영화제-다큐멘터리 '행담동 사람들'	백두관 시청각실/오후 2시-5시
	길거리농구대회 본선	대운동장/오후 10시
	노래찾기(새내기 노래한마당)본선	아외음악당/오후 3시
	열린공간(희망노래)	한라터/오후 1시
23일	총학생회 출범식	아외음악당/오후 5시
	노래찾기(새내기 노래한마당)결선	아외음악당/오후 3시
	새내기 길거리농구대회준결승	체육관/오후 1시
	새내기 길거리농구대회결승	체육관/오후 4시30분
	파라슈트 비행	삼의봉-아외 음악당/오후 1시
	백두관 시범	백두관 앞 광장/오후 4시30분
	포크댄스 공연	백두관 앞 광장/오후 2시
	미식축구 시범경기	대운동장/오후 3시
	동아리 연합회 '작은 축제'	음광발 앞 도로변/오후 3시
	백두예쁘게 마시기 대회	음광발/오후 4시

작으로 장정언 도의회 의장, 양영오(수학과)교수, 고충석(행정학과)교수, 신형철(기획연구실장, 사회학과)교수, 송창운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해 우리대학교의 위상을 점검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20일부터는 영화제 행사로 △'우리는 전사가 아니다' 결혼전 이야기' '행담동 사람들' 등 3편의 다큐멘터리가 백두관 시청각실에서

상영되며 △길거리 농구대회 △열린공간-희망 노래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출범식 행사

23일 출범식 당일 행사를 보면 △새내기 노래한마당 결선(오후 3시, 아외음악당) △길거리 농구대회 결승전(오후 4시30분, 체육관) △동아리연합회 '작은 축제'(오후

3시, 음광발 앞 도로변) △미식축구(오후 3시, 대운동장) △파라슈트 축하비행 △포크댄스공연 △택견시범 △백두 예쁘게 마시기 대회(오후 4시, 음광발)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식전행사에 이어 오후 5시부터는 아외음악당에서 총학생회 출범식이 개최된다. 음악학과에서 꾸미는 소규모콘서트를 시작으로 △풍물패연합의 소형 판국 △신구범 제주도지사, 장정언 도의회 의장 등 각계 인사들의 격려사 △고장권총장 인사 △총학생회장장사 △출범 선언문 낭독 △탈춤연구회의 소형 춤판 △학내노래패들의 축하공연에 이어 강산애·고지아·진시몬 등 인기가수들의 대대적인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한편 이번예 준비된 신입생 환영제 및 출범식행사는 예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년의 출범식행사가 몇몇 간부중심으로 이뤄지고 초청강연의 주제도 UR이나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이뤄졌던데 반해 올해는 인기가수작가 송지나씨를 초청하는등 학우들의 관심분야에 맞는 행사를 준비해 학우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출범식 본 행사에서 총학생회장 응접식이 없어지고, 민주가요중심의 축하공연에서 강산애 등 인기가수들을 초청한 점도 달라진 모습이다.

국제학술교류부 신설 추진

교류사업 활성화 위해... 평의회 심의만 남아

우리대학은 국제학술교류 활성화 및 업무전담을 위해 기획연구실 산하에 '국제학술교류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기획연구실(기획실장 신형철 사회학과교수)에서 마련한 국제학술교류부 신설안은 지난 3월7일 학무회의의 심의를 거쳤으며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평의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국제학술교류부를 신설하게 된 배경을 보면 지난 84년부터 일본 도호쿠 대학을 비롯 일본 나가사키 대학, 미국 퍼듀대학, 미국 네브라스카립킨 대학, 일본 류큐 대학, 독일 본 대학, 독일 튀빙겐 대학 등 3개 나라 7개 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을 맺어왔지만, 전담부서가 없는 관계로 그 성과가 저조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국제학술교류 협약체결을 위한 정보 및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 ▲92년 이후 국제학술교류 실적저조 ▲사업계획이 사전에 치밀하게 이뤄지지 않고 즉흥적으로 수립시행 되는 등의 무계획적인 사업추진 ▲주관부서없이 관련학과 교수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대학차원에서 사전검토 미흡과 대학본부에 예산반영 요청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학교당국에서는 ▲국제학술교류사업 정보 및 자료수집과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보충하고 학술연구조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기획연구실 산하에 국제

학술교류부를 신설 ▲국제학술교류협의회를 구성하여 학술교류사업을 체계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국제학술교류부 협의회(위원회)는 김법국(경영학과 교수)교무처장, 서두옥(어업학과 교수)학생처장, 신형철(사회학과 교수) 기획연구실장이 맡게된다.

현재 국제학술교류부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교수는 다음과 같다.

▲일본 도호쿠 대학=강민수(측산학과)교수 ▲일본 나가사키 대학=송대진(식품공학과)교수 ▲미국 네브라스카립킨 대학=문두길(원예학과)교수 ▲미국 퍼듀 대학=홍성락(물리학과)교수 ▲일본 류큐 대학=오문유(생물학과)교수 ▲독일 본 대학=김희철(독어독문학과)부교수.

우리대학 '지역협력장려연구센터'로 지정돼

한국과학재단, '농축수산물 가공센터' 설립... 연간 1억원씩 3년간 지원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협력장려연구센터'가 우리대학교에 설립된다.

연구지원담당관실(담당관 고기택)에 따르면 지방소재 대학 중심의 과학기술특성화 연구센터를 육성한다는 취지하에 한국과학재단에서 주관하는 지역협력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지역협력연구센터에서 조성계획에 의해 우리대학에는 '농·축·수산물가공센터'가 세워진다.

우리대학교는 그동안 지난 1월 24일 '지역협력연구센터' 설립 신청서를 보낸후 1월27일 1차 연구과제별 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2월 13일 한국과학재단의 직접 방문을 통해 지역협력연구센터설치지, 지역자치단체 및 산업체 지원사항,

연구프로그램 및 시설기자재현장 등에 대해 2차 현장평가를 받았다.

평가결과 지난 3월7일 최종적으로 '지역협력장려연구센터'로 선발된 우리대학교에서 '농·축·수산물가공센터'라는 이름으로 연구센터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총책임은 유장길(농학과)교수가 맡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구분야는 △수출양돈의 생산·가공·유통체계 확립 △특정병원부채 돈 생산기술개발 △수출양돈의 품

질고도화 연구 △감귤류 고기능 미생물 유전자 제재 개발 등 주로 농·축·수산물 가공분야와 수출농업 특성분야의 생산기술 및 가공기술개발을 연구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연구에 필요한 예산은 과학재단에서 3년동안 연간 1억원을 지원 받게 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참여기업 및 기타 출연기금으로 운영되게 된다.

한편,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선발된 학교는 강원대, 원광대, 조선대 등 3개 대학이다.

알림

제43기 수습기자 모집

- ▲모집분야 및 인원: 취재·사진·만화기자 15~20명
- ▲지원자격: 우리대학교 1학년
- ▲제출할 서류: 본사가 정한 양식의 입사지원서 1통
- ▲원서교부 및 접수: 3월16일(목)까지 대학원동(구학생회관)3층 본사 편집국
- ▲전 형: 3월16일(목) 오후 6시 본사편집국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문의사항: 제대신문사 ☎54-2278~9

제대신문사

술하트방

어긋난 상식

'여명의 눈동자'와 '모래시계'로 잘 알려진 극작가 송지나씨는 13일 있었던 강연회에서 "스무살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상식이 아닌 것이 상식처럼 되어버린 윗세대들의 잘못을 따르지 말고 상식대로 살자는 것이 '모래시계'의 주제이다"라고 말한다.

그녀의 말처럼 우리가 사는 곳은 상식이 아닌 것이 상식처럼 통해버리는 사회, 말이 안되면 공권력 투입으로 밀어부치는 것을 상식

으로 알고 있는 나랏님들이 버젓이 정치가답시고 어깨에 힘주는 사회가 되고 있다.

지난 12일 황낙주 국회의장 공관과 이한중 부의장 집에서 여당의 지방자치통합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를 막기위해 농성중이던 민주당의원들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강제퇴거당하는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지난해 여야합의로 지자체 통합선거법을 만들면서 민주당은 스스로 '정치혁명의 완수'라고 자찬했지만 1년 뒤인 취임 두달 기자회견에서 김대통령은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쪽으로 법을 고치도록 지시를 내린 것이다.

처음 민주당에서 내놓은 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통합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이 당원을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 선거를 대통령·국회의원·광역단체 선거로 한정, 기초 단선 선거에 나서려는 자는 선거권자의 추천에 의해서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정당공천을 배제한 채 치러진 91년 기초의회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1천3백43명중 81%인 1천1백여명이 민주당에 입당한 사실은 민주당이 정당공천 배제 주장의 뒷배경을 설명해준다.

94년 3월 여야합의로 95년 6월

27일을 제4대 지방선거일로 결정한다는 발표는 몇년동안의 지자체 실시논란을 종결함과 동시에 참다운 지방자치제 시대의 돌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선거일을 석달남짓 앞두고 과거 통일민주당 총재 당시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가장 강력히 주장했던 김대통령은 불과 1년 전에 통과시킨 법까지 개정하려 들었던 것이다.

결국 기초단체장은 공천, 의회의원은 공천을 금하는 것으로 14일 협의회로써 이번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문민정부는 공권력투입이란 과오와 완전한 지자체의 실현을 멀어지게 했다는 걸 부인할수 없다. [홍]

아르바이트신청 공고

1995학년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니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1995. 3. 13.(월)~4. 29.(토)

나.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각 학과 사무실

다. 알선기간: 95학년도 하계방학중

라. 기 타: 학기중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은 장학담당관실로 신청바랍니다.

1995. 3. 13.

학생처 장학담당관실

외국어교육관 4월 영어특강

- 일 시: 1995년 4월3일~4월30일(월요일~금요일, 공휴일은 휴강)
가. 아침반: 오전 7시30분~8시30분(1시간)
나. 저녁반: 오후 6시~7시(1시간)
- 장 소: 외국어교육관 외국어교육실(1층)
- 수강신청 장소: 외국어교육관 행정실(3층 ☎54-2291)
- 수강신청 기간: 1995년 3월22일~1995년 3월28일
- 교재 및 내용
가. 아침반: TOEIC, TOEFL 등과 취업, 진학, 외국유학 등 최신 시험 경향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방법인 Video를 통하여 강의함.
Focus on American Culture
Business
Health
Innovations
Environment
(미국 ABC방송교육프로그램 시리즈)
나. 저녁반: 미국의 실생활을 Video를 통하여 강의하므로 살아있는 생활영어에 익숙하게 함.
Family Album U.S.A
(미국무성이 총 700만분의 개발비용을 지원하고 세계 최고 권위의 Macmillan그룹이 개발한 한국인 전용 영어 비디오 학습프로그램)
- 강 사: 아침반-김원보(외국어교육관 특별연구원), 권영근(영어영문학과 교수)
저녁반-김재원(외국어교육관 특별연구원), 변종민(영어교육과 교수)
(수강인원은 아침반, 저녁반 각 62명을 기준으로 하되 수강신청 순으로 정하고 인원 초과시 40명을 기준으로 실강함)
- 수강대상: 제주대학교 교직원, 재학생, 교직원 자녀.
- 수강료: 1개월 수강료
아침반: 교직원 20,000원 재학생 15,000원 교직원 자녀 15,000원
저녁반: 교직원 20,000원 재학생 15,000원 교직원 자녀 15,000원

※ 교재는 구내서점에서 구입(수강신청 접수증을 제시한 수강자에게만 판매함)

교내 순환버스 운행안내

1. 목적

우리대학교의 정문에서 인문대학, 도서관 등이 원거리에 위치함에 따라 교내에서 버스를 순환운행함으로써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학내 이동시 편의를 제공함에 있음.

2. 시행일시: 1차운행 - 35.221(화)부터
2차운행 - 95.3.2(목)부터

3. 운행구간: 정문로터리(공중전화부스앞) - 도서관 현관앞

4. 운행차량: 우리대학교 대형승합(버스)2대가 교대로 운행

5. 운행시간

운행구분	운행시간	순환구간(정류소)
1차운행	08:50 - 10:00 (10분간격)	출발: 정문 - 학생회관후문 - 예술관입구 - 도서관현관(종점) 회차: 도서관 - 인문대학입구 - 외국어교육관앞 - 정문
2차운행	하절기(3.1 - 10.31) 16:00 - 17:30 (10분간격) 동절기(11.1 - 2월말) 16:00 - 16:50 (10분간격)	출발: 정문 - 공과대학 - 대학원동 앞 - 학생회관후문 - 예술관 - 도서관현관(종점) 회차: 도서관 - 인문대학입구 - 외국어교육관앞 - 정문

☐ 공용일 및 개교기념일·입학식·졸업식에는 운행하지 않음.

☐ 학내 전체행사 및 기타 행사지원으로 인한 버스 부재시에는 운행하지 않음.

6. 교통표지 설치

가. 운행구간에 각 정류지점에는 정류소 표지판 또는 노면교통표지를 설치하여 이용자 안내 및 차량 주·정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

나. 설치개소

- 정류소 표지판 설치장소: 8개소
- 노면표지(출발 및 종점): 2개소
- 주·정차 금지장소(출발 및 종점): 2개소(정류소 표지판 기둥에 부착)



시론 제도개혁과 중앙은행의 독립

금융통화위의 재경원 예측탈피 없이는 경제안정 어려워
통화가치 안정위해 '한은' 독립 필수적

김진옥
경제학과 조교수

재정경제원의 한국은행독립과 관련된 중앙은행제도 개편안이 당사자인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학계를 포함한 재야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해법은 정치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한국은행 독립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앙은행제도 개편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금융통화위원장이 한은총재를 맡고, 은행감독위원을 한은에서 분리시켜 증권감독원과 보험감독원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원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견 재정경제관이 금융위의 장을 겸임하도록 한 현행제도에 비하면 한은독립 쪽으로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위의 구성원



◇ 중앙은행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시대적 과제이다.

버 9명을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선임할 수 있고 그 중에서 1명을 재정경제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금융위는 실질적으로 재정경제관에게 들어가고 한국은행은 단순한 금융위의 집행기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은행감독기능을 한은에서 분리시켜 금융감독원에 통합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은행에 대한 심사 감독기능이 없이 통화신용정책을 한국은행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통화신용정책과 은행감독은 다같이 은행의 자산 및 부채운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집행기구인 한은과 감독기구인 은행감독원이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될 경우 통화신용정책의 운용

방향과 감독업무의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여러가지 혼란과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통화정책의 집행기관인 한국은행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통화신용정책 집행과 관련된 감독업무를 할 것이 자명하므로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예상된다. 이와같이 정부의 중앙은행제도 개편 및 금융기관 통합방안은 겉으로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높이고 은행운영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정경제원이 중앙은행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강화하고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분리함으로써 중앙은행을 하나의 단순한 집행기구로 전락시키려는 개악 입법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 개편안이 국회와 금융실명제와 부

을 심화시켜 왔음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와같이 통화가치의 안정 즉 물가안정은 불로소득자를 배제함으로써 부의 고른 분배를 통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었고 국가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심화됨에 따라 무한경쟁시대에 진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것은 한국경제가 개방경쟁시대에 선진경제체제로 이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문민정부의 출범이후 기업활동의 규제가 완화되고 금융실명제와 부

(재경원)는 통화신용정책 관련 3권인 정책수립과 집행·감독기능을 실질적으로 장악함으로써 한국은행조직은 정부에 예속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독립되어야 하는가? 먼저 한은독립의 당위성을 검토하기 이전에 중앙은행인 한은의 독립문제는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반세기여 걸친 쟁점이면서 92년말 3당대통령후보의 공약사항으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사항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은독립의 당위성은 한은총리의 주요목적이 시사하듯이 통화가치의 안정과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와 그 기능향상에 의한 경제발전에 있다. 경제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볼때 물가안정은 적정 통화량의 공급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는 지난 30여년간 개발독재경제체제에서 과도한 통화팽창이 필연적(?) 만성적 물가상승을 주도하였고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상대적 빈곤

을 심화시켜 왔음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와같이 통화가치의 안정 즉 물가안정은 불로소득자를 배제함으로써 부의 고른 분배를 통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었고 국가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심화됨에 따라 무한경쟁시대에 진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것은 한국경제가 개방경쟁시대에 선진경제체제로 이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문민정부의 출범이후 기업활동의 규제가 완화되고 금융실명제와 부

無 論 有 說

교수로서의 삶



김양순

제주대학교에서 첫 강의를 시작한지 올해로 20년이 된다. 시간이 흘러 강산도 두번이나 변했었는데, 교수로서의 삶을 살아온 나는 얼마나 변화했을까?

1975년 3월5일, 20대 중반의 나이로 학생들은 교수 강의를 하기 위하여, 가슴설레이며 떨리는 마음으로 낡은 강의실에 들어서던 일이 지나간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억의 스크린위로 스쳐간다. 어린시절 꿈이 교수가 되는 것이었는데, 성인이 되어 그 꿈을 이루고 모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기쁨과 행복함이 있었다.

교수로서 20대에는 좀더 새롭고 많은 지식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지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면 파란 하늘과 바다를 한눈에 바라보면서 지낼 수 있었던 낯고 비좁은 옛날 캠퍼스는 매력있는 곳이였다.

학생시절부터 좋아하는 운동은 주의 '서투'를 읊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는 교수가 되고 싶었다.

30대 들어서니 지금의 넓고 편리한 캠퍼스로 이사를 하였고, 10년 넘는 교수생활에서 처음으로 학생들로부터 가장 마음 아픈 상처를 받았던 일도 있었다.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줄수 있는 애정과 신뢰에 대한 상처는 나 혼자만의 아픔은 아닐것이다. 한

국의 대학에서 80년대를 거처온 많은 교수와 학생들 모두의 아픔이었을 것이다. 시간은 친절하고 좋은 치료제가 되어 지금은 상처도 아물고 기억의 흔적이 남아있다.

공자가 말하는 불혹의 나이에 들어서니, 사물을 보고 느끼며 받아들이는 일이 예전과 다름없게 되었다.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나 자신의 얼굴은 어떤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보여지고 있을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들이 숨김없이 비추어질 것이고, 내 마음안에 가득한 것들이 밖으로 나타날 것이다. 조금이라도 향기로운 모습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젊은 시절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사랑스럽고 애정이 갔었는데, 지금은 학생이라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사랑스럽고 애정이 간다. 그들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아니어도 캠퍼스에서 만나는 그들에게 찬사와 기

도를 함께 보낸다. 제주대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그들의 꿈을 키워주고 성숙하고 풍요로운 인간으로 자랄수 있도록 기도한다.

지금은 강의시간에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 일 이외에도, 내가 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삶을 그들과 나누고 싶다. TV와 함께 자라는 세대들, 컴퓨터와 함께 살고 있으며 앞으로는 기계와 함께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인간만이 할 수 있고, 인간만이 줄수 있는것, 즉 사랑하고 느끼며 사는 삶을 가르쳐 주고 싶다.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사는 삶...

한가지 일에 20년을 종사하면,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될텐데, 나는 20년을 강의하면서, 늘 초보생처럼 떨리고 마음설레이니 전문가되기 어려운 일인가 보다.

교수가 되는 길도 어려운 일이지만, 교수의 길을 계속한다는 것은 수도자의 삶처럼 어렵고 외로운 길임을 알고 있다.

제주대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알수 없으나, 남아있는 시간동안, 더 많은 것을 학생들과 나누며, 그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강의하는 교수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가정관리학과 교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본과 독일이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통화가치의 안정을 이룩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안정에 두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독립이 되어야만 물가안정이 가능한가? 물가안정의 대전제가 되는 적정통화량의 공급은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재경원)가 통화금융정책을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 정부는 경제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등 여러가지 상충되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물가불안의 위험을 과소평가하여 이에 대한 정책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정부가 정치권력의 입김에 의하여 성장의 단기성고에 집착할 경우 필연적으로 물가불안이 야기되어 그 피해는 국민경제가 입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진경제(미국·독일·일본)의 중앙은행제도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거나 적어도 중앙은행의 독립이 관행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주목할 사항은 중앙은행의

독립이 상대적으로 덜 된 나라들(영국·프랑스·필리핀·말레이시아 등)에서도 국제경제 경쟁력강화의 일환으로 중앙은행독립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앙은행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최소한 정부안에서의 독립은 시대적 과제를 알 수 있다.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해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우리의 국제경쟁력 즉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의 중앙은행제도 개편은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앙은행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최소한 정부안에서 독립되어야 한다. 즉 금융통화위원회 재경원의 실질적 제아로부터 해체하여 최소한 금융위의 정부안에서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금융위의 구성원들은 통화가치를 중시하는 그룹인 일본의 중앙은행제도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거나 적어도 중앙은행의 독립이 관행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주목할 사항은 중앙은행의

본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통화신용정책의 집행과 관련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감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의 효율제고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설립이 불가하다면 한은총리의 금융감독위원회 참여를 제도화하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통화신용정책 관련 부분과의 인적교류를 제도화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한국은행조직은 실질적으로 정부안에서의 독립이 가능하게 된다.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세계화시대에 부응하여 우리의 당면과제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미시적 개혁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물가안정이 이시대의 시대적 과제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통화신용정책관련 3권인 정책수립과 집행, 감독기능을 한국은행조직에 실질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그 스스로가 권한과 책임을 함께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비대립적 대립대립을 견제하고 균형있는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자생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社 告

제15회 백록문학상 현상공모

- 분 야
 - 시 : 5편 이상
 - 단편소설 : 70매 내외
 - 문학평론 : 50매 내외
- 시 상
 - 시 : 당선작 1편 40만원
 - 단편소설 : 당선작 1편 50만원
 - 문학평론 : 당선작 1편 50만원
- 응모마감 : 1995년 5월 20일
- 제 출 처 : 대학원동(구 학생회관)3층 본사 편집국
(동기우편인 경우에는 '백록문학상응모작품'임을 명기할 것)
- 응모자격 : 우리 대학교 재학생
- 당선작발표 : 『제대신문』개교기념 특집호에 발표
- 기 타 :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54-2278, 2279)

제대신문사

신뢰의 쌍용
세계와 함께

정도로 쌓아온 쌍용의 신뢰,
세계로 이어 갑니다.

인류사회 발전을 위해
바른 길을 걸으며
고객과 함께 쌓아온 신뢰-

세계기업 쌍용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그 신뢰를 세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 쌍용

지역답사 관공지 주민들의 오늘 -남제주군 ①

관에선 말끝마다 골프장 건설의 당위성만 역설
지역특성 감안한 실질적 주민참여방안은 제시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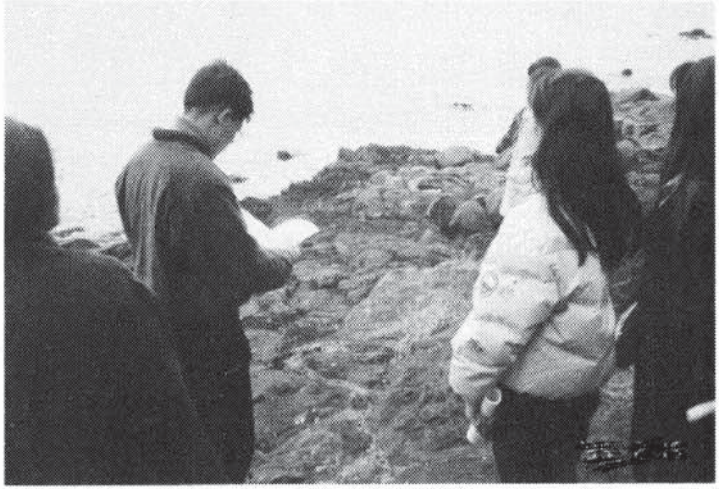
지역조사위원회 겨울방학 계획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답사는 현장 체험을 통한 학내 활동의 한계 극복이라는 답사 일반의 목적과 주민참여 개발을 위해 현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방안 및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농수산물 시장 개발에 따른 대응 방안의 하나로 지역내에서 조직, 운영되고 있는 생산자조직의 운영 사례를 찾아보기로 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3개단지, 7개 관공지를 답사의 대상으로 선정했고 북제주군 화천단지 생산자 협의회를 방문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시행 원인을 한해 관내에서 추진된 전반적 사업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남제주군청과 북제주군청을 포함시켰다.

전반적으로 답사의 일정 자체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 참가자 전원이 나름대로의 여유(?)를 갖고 답사 일정을 진행시키지 못했고 대용면에서도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현장 확인, 대안의 제시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몇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두차례에 걸친 답사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앞으로 지역문제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점을 설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답사의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1차답사

2월15일 10시, 서귀포1호 광장에 집결, 첫 예정지인 남제주군청을 방문함으로써 이번 답사의 실질적 일정이 시작되었다.

남군청에선 개발 관련부서인 도시과를 방문해 도시과장, 계장과 관내에 지정된 2개 단지(표선민속관광단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지조위원회는 지난 2월15일 관공지 주민들의 의식조사자 남제주군지 역을 답사했다.

3개 지구(남원, 용머리, 송악산관공지)에서 올 한해 추진하게 될 개발계획 및 주민 참여방안 등에 대해 면담했다.

토지개발공사의 공영개발로 이뤄질 성산해양관광단지는 금년말에 개발계획전반에 관한 용역이 끝나게 되고 공청회를 거친 후 내년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단지개발을 추진한다고 잘라 말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나 남제주군 실시계획에서 제시했던 각종 개발계획은 어디까지나 개발의 기본방향일 뿐이며 주민 의견 수렴 및 계획 자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에 계획 자체만을 가지고 그대로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 주민의 개발 참여와 관련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성산 리라호텔 철거후 그 자리에 조성될 상가의 조성 주제 및 분양방식에 대해 남군청 담당자에게 질문을 했다. 구체적인 대답을 듣지는 못했으나 상가 조성사업은 남제주군이 주체가 될 것이며 상가의 분양은 기존

입주자들의 권리를 우선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표선민속관광단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최근에 경제와 유찰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 표선민속촌을 의식한 탓인지 분위기가 무거웠다.

지난 85년 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에 의해 민자유치 1호 사업으로 문을 연 민속촌이 경영악화 및 사업주의 불성실로 부도가 나고 2차에 걸친 경매마저도 거듭 유찰돼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의 얼굴이요, 역사가 되어줄 민속촌의 보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관은 사유재 산권 침해라는 벽을 넘지 못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남제주군이 직접 인수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니 적어도 1백억이 넘는 인수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고려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밖에 50만평 규모의 단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송악산지구는 보존지역이 많고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되어 있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없는 상태이고 군과 주민이 합작으로 추진될 용머리지구 또한 보존이 주된 목적으로 조성 계획에 의해 개발이 추진된다고 했다. 남원지구 역시 2차지구는 사업자 선정이 안된 상태이다.

전반적으로 올 한해 남제주군에서는 개별 관공지구별로 수립된 개발계획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조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의뢰 작업이 추가 될 것이라고 했다.

1, 3차 산업의 연계방안의 하나로 관내 대형호텔과 농민들간의 계약재배를 제시하는 하, 관광분야에서 공무원들의 지식·경험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털어 놓기도 했다. 민자유치를 위해 10대제벌에 대한 투자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면 현재 대기업에 홍보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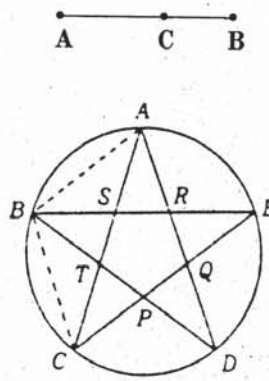
약 1시간30분 정도의 짧은 대화였지만 우리는 지역개발을 비롯한 여타의 지역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의 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개발의 또다른 주제로 설정해도 좋을 관의 개발관으로 나타난 비약일지는 모르겠지만 "민자만 유치되고 시설물만 들어서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식이었다. 보는 관점에서 즐기는 관광으로의 전환이 변화된 관광 패턴임을 강조하는 말끝마다 따라나오는 골프장 건설의 당위성(?)은 어느덧 누구의 입에서도 나올 수 있는 제주개발 최상의 대안이 되어 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후 조정계획의 수립과정에서 1차산업의 중심지라는 지역특성을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방안을 제시해 줄 것과 방법의 모색을 서로에게 당부하며 다음 답사자인 표선민속촌으로 발길을 돌렸다.

(지역조사위원회)

과학이야기

황금분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될때부터 이미 수학이란 단어는 많은 다른말로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고 하나 하나의 사실들이 체계화되어 오날날에 없어서는 안될 학문의 한 분야를 이루고 있다. 거기에는 논리적인 이론전개나 증명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대한 통찰력에 의해서도 많은 사실들이 밝혀진다. 오히려 후자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수학적인 어떤 사실의 발견배경을 살펴보면 훨씬 이해가 쉬워진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교과서에 의한 지식전달만의 수학은 우리에게 수학이란 말을 너무나 재미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조금만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아마도 지금까지 갖고 있던 수학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소리를 듣거나 어떤 사물을 볼때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받을때가 많이 있다. 그런 느낌을 우리의 감각에 의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좀더 깊이 논리적인 사고로 접근해 보자. 틀림없이 어떤 법칙이 있을 것이다. 예를들면 누구나 쉽게 접하고 있는 도형중에 정다각형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많은 정다각형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아름다운가? 대부분 사람들이 정오각형이라고 대답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실제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별표 모양의 정오각형을 자기 학교의 배지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물론 피타고라스가 수학자이기 때문에 수학자의 어떤 독특한 감각이나 우연이었거나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수학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별표 모양의 정오각형에 아름다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오각형에는 어떤 법칙이 숨어 있기에 다른 어떤 도형보다도 아름답게 보일까? 거기에는 '황금 분할'이라는 법칙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 황금 분할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케플러(1571

~1630)에 의해 처음으로 명명되어 졌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이탈리아의 수학자 파시올리(1445?~1509?)에 의해 '신의 비(比)'라는 말로 불려왔었다. 다시 말해 '신이 내려준 비(比)'라는 말로 그것에 대한 신비스러움을 칭찬하였다. 사실 이것에 대한 개념은 특정한 말로 불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본에도 이미 언급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황금분할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림에서 BA=BC=a라 하면 AC=(5+1)/2이요

△ABT는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AT:AC=1:(5+1)/2이다. 즉 이것을 종합하면 AB:AC=AT:AC=AS:AT=1:(5+1)/2임을 알수가 있다. 즉 정오각형은 황금비의 총 결정체임을 알 수가 있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치(1170?~1250)는 "한쌍의 토끼는 두달후부터 매달 한쌍의 새끼 토끼를 낳고 이 새끼 토끼는 두달후에 또 한쌍의 새끼 토끼를 계속 낳는다"고 한다. 그러면 1년후에 토끼는 모두 몇쌍이 되겠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했다. 이것을 수열로서 표시하면 1, 1, 2, 3, 5, 8, 13, 21, ... a_n ...로 되는데 이런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한다. 이 수열에는 여러 재미있는 성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lim_{n \rightarrow \infty} \frac{a_n}{a_{n-1}} = \frac{5+1}{2}$, 즉 토끼수는 황금분할의 비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다. 물론 이 수열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아름다운가 하는 문제는 각자의 생각에 달려 있지만 수학적인 아름다움은 분명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런 일련의 수열이 황금분할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는 대상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황금비는 자연계 뿐만 아니라 건축물, 공예품, 예술작품들 우리주변에 널리 적용되어 있다. 나비나 눈의 결정체에도 이 황금비는 여지없이 적용되어져 있고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우리나라의 석굴암, 이집트의 피라미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안사와 성모성가, 심지어 꽃잎의 수를 우리가 아름답고 신비스럽다는 모든 것에는 이 황금분할의 법칙이 적용되어져 있는 것이다. 물론 옛날 사람들이 이 황금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작품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아름다움을 추구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아름다움에도 이 황금분할의 법칙이 항상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용하고 즐기는 모든 대상물에는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었지만 이런 황금분할의 법칙은 적용되어지고 있다. 특히 직사각형의(가로:세로)의 비가 황금분할의 비로 구성되어져 있을때 직사각형은 가장 보기가 좋은 것이다. 주위에 있는 책상이나 책들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옛 선인들이 그럭저럭이었지만 항상 새로운 사실을 찾으려는데 우리 모두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수학과 전임강사)

폐교교과목 소개

'한국철학의 이해'

이 교과목은 민족사상을 재정립·체계화시키고 이를 현대적 시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민족자주정신과 평화의지회귀를 목표로 하는 교과목이다.

한국사상은 천지인 삼재일체원리에서 발원하여 도(선)불유의 사상으로 분화·발전해왔다. 이러한 동양사상의 원류를 지금까지의 통설에서 탈피하여 발생학적 원리·성격·내용 등 사상적 구조와 체계들을 연구과제로 하여 지금까지 왜곡돼 왔던 바를 지적하고 비판하게 된다.

95년 1학기에 4백75개의 교양교과목중 30개의 과목이 폐강됐다. 당국의 노력에 의해 폐강교과목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있지만 선배들의 조언이 수강신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는 폐강되는 교과목은 매학기 폐강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사에서는 이런 결과들이 혹 일부 교과목에 대한 정보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닐까 하여 계속 폐강되는 교양교과목을 소개하는 단을 마련했다.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하는데 학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 (역은이 씀)

『한민족의 신전도와 불교』를 교재로 하여 ▲홍익인간론 ▲신전도의 유래 ▲세계 3대 인종과 민족성 ▲삼신하녀님 사상의 발생원리 ▲종교사상으로 생명평등사상과 조화사상, 음양오행사상 ▲정치사상으로 세계주의 사상, 민족주의 사상 ▲계율과 의식 ▲문자와 언어의 통일성으로 문자 및 언어의

동일성 등의 순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한국사상론'

한민족 고유사상을 재조명하고, 불교·유교·대종교·동학 등 민족사상 전반을 개관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일깨우고, 철학적 사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철학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탐구한 후 동양철학의 주요문제와 내용체계를 살피으로써 한국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철학을 해왔는지를 인물과 시대별로 탐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상의 이해』를 교재로 하여 ▲홍익인간론의 문제제기 ▲삼신하녀님의 개념, 3교1체사상 ▲기후와 지리, 세계 3대인종과 민족성의 발생학적 배경 ▲불교·석가족·단군족의 기원과 백두산고행 및 대웅전의 기원 ▲사후세계, 12연기, 팔정도, 삼법인등 불교의 기본사상 ▲불교의 역사, 신라·고려·조선의 불교 등 우리나라의 불교 ▲유교의 사상 ▲도교사상 등의 내용을 계획에 따라 살피는 교과목이다.

제43기 수습기자 지원서 접수 3월16일(목)마감

베베 심리TEST

내입술엔 어떤 베베가 어울릴까?

미팅은 오락의 일종 남자를 고르는 자리가 아니다

여권운동을 쓰려면 자신있게 내내길 쓰겠다

남자친구? 많을수록 좋은거 아냐

베베는 주로 받는 편, 치는 적은 별로 없다

안전히 선택하느니 스킨스쿠버를 즐기겠다

사랑받느니 사랑하겠다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크림베베형
당신은 특특튀는 X세대-아무것도 때론 당돌한 구석도 있는 그대의 입술엔 화사한 느낌의 크림베베가 어울리겠네요

하니베베형
매사에 활동적인 당신은 오피니언 리더-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생활을 좋아하는 만큼 다소 도발적인 색의 하니베베가 좋겠네요

루즈베베형
귀엽고 수줍은 모습을 가진 당신은 달콤한 로맨스를 꿈꾸는 사랑스런 루즈베베의 연인입니다

구제불능형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을 가꿀 생각도 없고 적극적인 성취욕도 없는 당신-정말 매력없네요 일찌감치 선택한 수습 하세요

50 1945-1995 무한·행·일·주·의

라네즈

레세

마몽드

아모레베베 메이크업

■ '3·8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모두 사회변혁의 주체임을 각인하자”

‘권력이 있는 곳에 여성은 없다’라는 언질을 담은 엘리자베스 벨런스 이후의 세대는 더더게나마 변화로의 행로를 걷고 있다.

정치참여에 있어서 여성의 활동들과 그 움직임들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매시기의 담대한 상황에 맞추어 ‘정치’라는 사회적·구조적 의전수령체계를 통해서 여성 자신의 입지를 정당하게 고수, 지지하고 있다.

실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인간평등, 그리고 각 개인마다의 존중, 그러한 의미로 널리 해석되는 ‘선거권’도 그저 시간의 흐름에 내맡겨져서 거저 얻어진 부산물이 아니라 오래고 끈질긴 투쟁에서 팔미갈았음은 주지해야 할 사실이다. 사회의 발전양상은 그 사회제도의 모습들을 보다 견고하게 다지는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제도에서라면이 인권의 유린을 막을 수 있으며 유린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사회전반의 틀을 갖춰나가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임은 자명하다. 사회의 이러한 변화 추이에 맞추어 여성의 정치참여투쟁은 오늘에도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번거로워지는 악순환의 모습은 기존의 해결하지 못한 것은 문제들 위에 덧씌워져 새로운 시대감각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제약사항들이 부가되면서 여성의 인간다움의 해방은 더욱 난해해지고 있다.

‘여성에게도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달라’.

1908년 3월8일 미국 섬유노동자 수백명이 빵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내건 슬로건이다. 당시 미국 여성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장시간의 노동을 시달리고 있었다. 귀족부인의 파티복에 금박을 박은 25세의 여성노동자가 장남이 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선거권도, 노동조합 참여권도 부여되지 않은 채 사회·경제적으로 억압만이 주어졌다. 특히나 출산과 창문이 잠긴 공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시달리던 여성 피복 노동자 146명이 불에 타 죽은 화재 사건은 미국 전지역의 여성노동자들을 하나로 단결케 한다.

1909년 미국 전역의 여성들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수 있다는 생각으로 참정권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또한 과도한 작업량과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한 반대, 어린이들에 대한 노동착취 금지, 여성과 임신에 유해한 작업금지, 산전산후 8

주간의 출산 휴가등의 모성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10년 마침내 전 의류노동자가 단결, ‘의류노동자연합’ 탄생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고, 같은해 ‘제2인터내셔널 여성협의회’는 미국 섬유노동자 운동의 도화선이 된 3.8시위를 매년 ‘세계여성의 날’로 기념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제정된 세계여성의 날이 올해로 87주년을 맞는다.

물론 그 이후의 여성들의 투쟁이 부수적이긴 했으나 여성자신의 입지를 비판했다는 데 대해 큰 성과로 남은 것이다. 이런 여성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선거권도 여타의 다른 조직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총여학생회도 마찬가지다...

11년동안 아랫밭에서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았던 총여학생회!

11년의 역사를 뒤돌아본다면 학내에서 여학우들의 믿음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려했던 시기였고 중앙과 과단위의 여학우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 버려져 버려졌던 여성문제를 명확하게 짚어내려왔던 시기라고 생각된다.

총여학생회의 역사는 많은 질곡을 거쳐 유형·무형의 성과로 인해 지속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지금까지 열어놓았다. 비록 그동안 총여학생회의 중앙만의 주도적 사업을 진행해왔었다는 문제점만 빼고 말이다.

그리고 정치관행적이었다는 것도... 기존의 총여학생회 모습이 이래왔었다면 지금은 단대여학생위원회의 강화가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일 것이다. 많은 다양한 여학우들의 요구가 밀바다에서부터 차근차근 계단을 타고 올라온다면 이것이 곧 내실있는 사업이 되고 여학우들의 조직인 총여학생회-단대여학생위원회-과여학생회가 튼튼히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그리고 왜곡된 여성의 문화 사회문화화를 올바르게 인도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면서 논의의 중심추가 조금은 벗어난 것 같기도 하지만 기타의 여성단체나 총여학생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여성들의 끊임없는 투쟁의 산물이라고 다시한번 힘주어 외치고 싶다. 여성노동자들의 합성이 3.8세계여성의 날을 제정하게 된 원동력이 된 여성해방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해결의 발자국은 실천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여성해방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해결은 실천이다.

함축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탁상공론으로 이론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해도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여성해방의 길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아랫밭에서 선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구가 바로 총여학생회, 4천여학우임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리고 올해 있는 6.27 지방선거에서 여학우들이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이 땅의 절반임을 자랑스럽게 느꼈으면 좋겠다. 무수한 희생속에서 값있게 얻어낸 성과물인 선거권을 무심하게 던질수야 없지 않겠는가? 선거 때마다 여성들을 하나의 표 발로 생각하는 후보자들! 여성들은 한표가 아니라 이땅의 진정한 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개개인이 사회변혁의 한 주체임을 각인하고 대개혁의 문을 향해 한발자국 다가서는 여학우가 되길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얘기하고 싶다.

(이보실 총여학생회장)

매·체·비·평

신문·잡지에 광고만 ‘잔뜩’ 지나친 상업성추구 지양했으면

신문이나 잡지같은 매체들이 물론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요즘의 신문들, 잡지들은 너무나 편파적으로 소비적 상품에 대한 정보전달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종류의 신문을 막론하고 소비 상품에 대한 광고가 상당한 면을 차지한다. 심하면 아예 두면 가득 하나의 상품 사진과 이름으로 꾸며져 있기도 하다. 이러한 광고들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지는 신문이 더욱 읽을

거리가 없다는 듯이 여겨지고 대하기가 싫어진다. 조그마한 문화관련 잡지를 보려고 해도 150페이지가 채 안되는 분량에 잡지 성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각종 다양한 상품의 광고가 지면의 20면 이상을 차지하고, 게다가 광고면의 종이지의 기사보다는 원색의 광고그림을 구경하다가 식상해서 뚜껑을 덮게 되는 일이 많다. 신문이나 잡지를 대하기가 몹시 짜증스럽기도 하다.

(정루시아 국어교육학)

문민시대에 언론통제라니

한겨레 신문 1995년 3월9일에 김홍신씨에 관련된 기사가 있었다. 김홍신씨가 「야당의 12·12관련 정치 집회에 참석해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방송사측이 방송을 그만둘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방송 중에 정부를 비판했다는 것. 몇 년전까지는 그런 행위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서로 그에 대해 토론하는 것조차 철저한 금지당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언론 통제에 대한 문제는 옛날부터 폭문 제시 되어 왔었고 반발도 많이 있었다. 언론의 자유.

이것은 말만 그럴듯하게 세워왔지, 실제로 외부적인 억압이 너무 심한 것 같다.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당하게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에서는 그 비판을 적극 수용하여 정치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치인의

서 평 『한국 현대 시인론』김병택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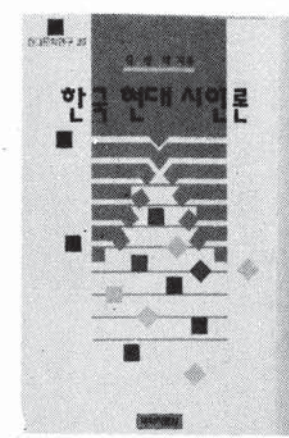
문학사의 그늘 속 시인들 재조명해

동일하거나 비슷한 분야를 전공하는 교수로부터 최근 논자를 받는 일보다 흥미롭고 반가운 일은 드물다. 우선 그가 학문과 강의에서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는가를 짐작할 수 있어 흥미롭고, 자기 분야의 연구가 축적되고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반가를 수밖에 없다. 필자가 이번 우리 대학 국문과의 김병택 교수로부터 국학자료원에서 펴낸 『한국 현대 시인론』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펴낸 『한국 현대 시인론』의 목차를 소개하면, 크게 〈시인론〉·〈문학사〉·〈문학비평〉·〈문학연구〉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정력을 쏟은 것은 제1부의 〈시인론〉으로 보인다. 다루고 있는 시인은 이진경, 한용운, 황석우, 백석, 이광수, 윤동주, 박인환 등으로서, 이상화·한용운·황석우는 1920년대 낭만주의 시인이고, 백석·이광수는 1930년대 시인으로서 북한에서 태어나 활동했거나 월북한 시인이고, 윤동주·박인환은 주지하다시피 1940년대의 시인이다.

그런데 이들 시인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묶을 수 있다. 첫째는 대부분이 낭만주의자나 신낭만주의자들로 분류되는 시인들이며, 둘째는 첫째의 특징이 암시하듯 의미와 정서 중심의 시인들이고, 셋째는 한용운을 제외하고는 학계의 연구가 다소 부진한 시인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책의 업적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말한다면, 문학사의 그늘 속에 가려진 시인들을 재조명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저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목적에서만 그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닌 듯 싶다. 그것은 그가 1986년에 펴낸 『바벨탑의 언어』(문학예술사, 324면),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인 『한국 근대시론 연구』(1987, 동국대 대학원, 1988년 민지사에서 출간), 이번에 펴낸 책 제2부 〈문학사〉(문학사)를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용운에 대한 연구는 『바벨탑의 언어』에 수록된 「남의 침묵의 수사적 경향」의 연장이고, 1920년대 시인들에 대한 관심은 학위 논문과 이 책의 2부에 수록된 「한국 낭만주의 배경과 성격」 및 「1920년대 시론」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에서 활동한 시인들에 대한 연구는 이 책 2부 「프로 문학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학문적 거점을 공고히 하고 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에게 특히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 책의 제3부 〈지역 문학론〉이다. 그는 먼저 「지역 문학의 존재 방식과 그 전망」이라는 글을 통해 지방 문학의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한 다음, 우리 대학에서 정년 퇴임한 교수 양

중해 시인을 비롯하여, 현재 영문과에 근무하고 있는 강동원 교수, 독문과의 문충성 교수의 작품 세계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학교 밖으로는 한기팔, 김용해, 김용길, 나기철, 김승업, 허영선 시인들을 논하고 있다. 그의 이런 관심은 1986년도에 펴낸 『바벨탑의 언어』의 「현실과 역사를 보는 시각: 문충성·현길 언론」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저자의 일관된 관심의 표현으로 보인다.

필자가 이 3부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것은 지방 자치제가 곧 실시되고, 그에 따라 지방 문학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에, 과연 지방 문학을 위하여 어떤 방안을 제시할 것인가라는 관심과 함께, 아직 학문적 분석 대상에 오른 적 없는 이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는 호기심 때문이었다. 아직 이 분야의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여서 애정 표시의 단계를 머무르고 있지만, 이런 논의가 축적될 때 지방 문학이 발전하리라는 생각에서 가치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론〉은 〈작품론〉과 〈문학사〉의 중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 기반이 미약하면 이들 역시 부진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에 김병택 교수가 펴낸 『한국 현대 시인론』은 우리나라 시인론이 특정 작가나 시인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형식주의 방법론에 얽매어 공백이 생긴 부분을 보완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문학사나 작품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되리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반가움을 표한다.

윤석산(국교 부교수)

기본적인 자재라고 생각하며 또 그것이 정치계에 있어서의 정석이 라 생각한다. 이제 이러한 정부에 대한 비판 등을 하는 언론이나 방송계에 대

해 무조건적인 통제를 하기 보다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우선 반성이 필요할 것이고 수용할려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강남임 독어독문2)

지나치게 선정적인 TV광고 규제해야

나는 TV를 아주 좋아한다. 아 니 좋아한다는 것보다 TV에 얽매어 살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다. 집안에 들어서면 일단은 TV를 켜 본다. 재미 있는 프로그램 나오면 시청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밥을 먹든 공부하든 TV를 켜는채로 다른일을 한다. 습관이 되어 버린 것이다. 물론 나 혼 자만 이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느 한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동해

물과에서 시작해 동해물과로 끝나는 애들도 있다. 이렇듯 TV는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TV의 성질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광고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는 인기있는 드라마를 시청하려면 보통 20편의 광고를 보고 나서야 드라마를 시청할수 있을 정도다. 정말 짜증나는 일이

다. 하지만 광고가 이 정도에서 끝나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가지 않는다. 문제는 광고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다. 물건이 잘 팔리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강한 인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과격적인 장면을 내 놓아야 한다. 한 예로 ciero라는 자동차선전에서 노랑머리 아가씨가 나와 아주 섹시한 자세로 차를 선전한다. 정말 역겨운 일이다. 차 한대를 팔기 위해 꼭 그렇게 야해야 되고 외국사람을 모델로 써야하는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떤것을 배울지인가.

광고주측에서나 광고회사측에서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이다. (강세권 전자공 1)

전화할부시대선언!

접떠난 자녀에게 걸려오는 한통의 전화 부모님은 더없이 만족하십니다.

목돈마련이 어려운 자취생, 하숙생, 기숙사 입주생들에 대한화소식! 2만3천원이면 전화를 달아드립니다. 지금 곧 신청하십시오.

■ 전화설비비 2십2만2천원은 2개월에서 10개월까지 분할하여 내실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분납시: 2만3천원을 지참하고 전화국에 신청(주민등록증, 학생증 지참)
- 완납시: 전화국에 서면 또는 전화신청 -전화신청 방법: 각국+0000번으로 전화신청 의뢰후 아래계좌로 입금
- 계좌번호: 제주은행 03-01-026930(제주전화국 현금출납 담당)
- 방문접수: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주전화국 판매과 58-02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통신제주전화국장

개척하는 진보!! 비상하는 젊음!! 도전하는 미래!!

'95 참여와 자치 진보 총학생회에서 지성과 패기의 젊은 일꾼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95학번 새내기를 포함한 8천 아라학우
- 모집기간: 2월20일부터 3월말까지
- 모집부서: 1. 기획국 2. 문화기획국 3. 지역연대국 4. 여론조사국 5. 총무국 6. 정보문화위원회 7. 정치행정위원회

무대는 세계 주연은 바로 여러분!!!

광복 50주년 보훈문예작품 현상공모

광복 50주년과 세계화의 원년을 맞아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하는 노력이 매우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자라나는 세대의 호국정신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시와 수필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생활수기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작품소재
 - 광복 50주년을 맞아 조국과 민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내용
 -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과거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훈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상기시키는 내용
 - 선조들이 이루어낸 광복을 통일로 완성시키려는 의지를 담은 내용
 -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민족주체성을 바탕으로 한 일류국가 건설의 희망을 담은 내용

2. 응모대상
 - 제한없음. 단, 시와 수필의 경우에는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로 구분 모집하고 생활수기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한함.

3. 응모작품 및 현상금
 - ◆ 시·수필 분야

(단위: 천원)				
부문	구분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시	최우수	1천(200)	1천(300)	1천(500)
	우수	1천(100)	1천(200)	1천(300)
	가작	1천(50)	1천(100)	1천(200)
	장려상	5천(30상당)	5천(50상당)	5천(50상당)
수필	최우수	1천(300)	1천(500)	1천(1,000)
	우수	1천(200)	1천(300)	1천(500)
	가작	1천(100)	1천(200)	1천(300)
	장려상	5천(50상당)	5천(50상당)	5천(100상당)
합계		16천	16천	16천

보훈처

◆ 생활수기 (단위: 천원)			
최우수작	우수작	가작	장려상
1천(200)	1천(100)	1천(500)	3천(200)

4. 응모기간: 95. 3. 15~4. 15.

5. 당선작 발표

- 일시: 95. 5. 15.
- 방법: 개별통보 및 95년 5월호 보훈신문에 발표

6. 응모요령

- 수필은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로 함
- 생활수기는 자황성공사제, 미당사제, 체담당 등을 중심으로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로 함.

7. 접수처

- 서울지방보훈청(지도과: 796-3452~3)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107
- 부산지방보훈청(지도과: 469-1858) 부산시 중구 중앙동 74-11
- 대전지방보훈청(지도과: 253-6783)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28
- 대구지방보훈청(지도과: 654-8041~2) 대구시 남구 대명동 5구 1684-1
- 광주지방보훈청(지도과: 672-9771~2) 광주시 서구 주월동 213-6
- 제주보훈지청 (보훈과: 58-3152) 제주시 이도 2동 1176-16

8. 유의사항

-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응모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전화)를 반드시 명기

※ 당선작에 대한 재발권리는 국가보훈처에 귀속됨.

□ 연구소탐방 —법과정책연구소

급변하는 정세에 부응한 정책개발 주력
올해 포럼 4차례 개최... 논문집도 창간

법과정책연구소(소장 서경림 법학과 교수)는 법과 정책에 대한 실용적 연구를 통한 지방자치의 심화, 발전과 관학협동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물론 법과 정책에 대한 학제적 연구라는 학문적 경향에 부응하여 학문계열간 연구의 형평성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94년 9월 1일 우리대학 부설연구소로 설치됐다.

법과정책연구소에는 소장을 비롯, 연구교수 20여명과 관·검·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법률관계 전문가와 고급행정관리 등이 특별연구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한편 연구소산하에는 ▲정책평가 ▲자원재편 및 보전 ▲지방자치 ▲법제사법 ▲국제통상 ▲집단민원 ▲법의학 등 7개 연구활동분야가 있다.

각 분과별로 이론과 실무를 접목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개방화, 국제화에 부응한 정책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활동에 힘쓰고 있다.



◇ 지난 12월 23일 법과정책연구소 주최로 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세계화를 위한 토론회'에 5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주요업무로는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연구발표 및 공개강좌 개최 ▲간행물의 발간 ▲연구소 목적 수행에 필요한 기타부대사업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개소한 후로 법과정책연구소에

서는 연구소 단독 주체로 '세계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방향과 도민의 대응자세'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 한국지방자치학회 제주지회와 공동주최로 '지방자치의 자율화와 국제화'란 주제

로 국제학술대회를 갖는 등 2번의 세미나가 열린바 있다.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서교수는 오는 5월을 시작으로 1년에 4번 분기별로 연구진과 교수 1~2명을 더 초빙하여 제주도 법과 정책에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소규모모임에서 내실있는 포럼을 개최할 방침이라면서 "교수와 연구진을 더 확보하여 올 8월쯤 국내 어느 연구소에 못지 않은 알찬 논문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교수들의 학내연구풍토의 조성과 함께 해당학문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으로 법과정책연구소가 설립되었는데 아직까진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있어, 연구소가 좀더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연구소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교수는 "현재 타 대학의 경우 법률행정연구소, 법학연구소 등 법관련분야의 연구소가 많지만 법과정책연구소라는 명칭으로만 연구소는 우리대학밖에 없다"며 법과정책연구소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학교당국의 더 많은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수들뿐만 아니라 전공관련 학생들과 여러 관심있는 학생들이 연구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야를 넓힐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이진기자)

신임교수 초대석

생활속에서 '참된 삶' 추구할터



손 오 규

새 봄의 서설(瑞雪)이 내려 하얀 한라산을 바라보며 교정을 들어섰다. 제주를 내가 처음 방문한 것은 신혼여행 때였다. 한 사람의 여자와 평생 살아가며 인생을 가꾸고 미래의 삶을 설계하고자 하는 황홀하고도 희망이 가득한 시절이었다. 모든 자연의 경치와 사람들이 즐거워보였고, 나 자신도 스스로 즐거웠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제주의 쪽빛 바다, 저 수평선 너머에는 진정 무엇으로 가득차 있을까, 등등의 상상 속에 기쁘고도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오늘 내가 대학의 전임으로 교정에 첫 발을 디딘 순간에도 그 때의 그 꿈이 되살아 나는 듯했다. 사방으로 트인 넓은 교정, 새 봄의 청초함과 신록의 싱그러움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가로수들. 나는 한참을 서서 백설을 머리에 더하며 법과정책연구소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학교당국의 더 많은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수들뿐만 아니라 전공관련 학생들과 여러 관심있는 학생들이 연구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야를 넓힐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 시구의 정감을 실감하게 되었다. 하여 이 제주대학교는 곧 枕溪觀山樓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환경은 산수문화를 전승하는 나에게는 새로운 신비감으로 젖어든다. 학생들도 무척 맑고 조용한 모습으로 느껴진다. 남녀 학생을 불문하고 다소곳하고 어딘지 수줍음을 감춘 것은 마치 교정의 수목이 봄을 맞아 새로이 움을 터뜨리려는 듯한 모습과 꼭 닮았다. 나는 어느덧 자연에 깊이 파묻혀 버린 즐거움과 상쾌함에 무척이나 기뻐했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다. 학문은 진리추구가 궁극의 목적이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생활을 통해 체험되고 검증되지 않으면 참된 지혜로서의 삶이 아니다. 또 나는 사법대학의 교수이다. 어떻게 하면 학문의 眞知(참된 삶)를

교수로서의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가 있을까. 나 자신 자문자답하여 본다. 모르겠다. 하여 성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공자께서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可하다"라고 하였다.

'참된 삶'을 추구하는 삶은 이토록 비장한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또 '참된 삶'을 실천하는 삶은 또한 그것을 넘어설 것이다. 생각컨대 공자의 학문이 시대를 넘어 오늘에까지 감동을 주는 것은 그의 진리추구의 자세와 실천의 의지가 이토록 비장하였음에서 비롯하는 것일게다. 사람은 가도 山川은 유구하듯 공자는 가졌어도 진리만은 영원하다. 하여 나는 이 아름다운 제주의 산수를 보며, 학문의 자세를 가다듬는 데 힘써 노력할 수밖에, 더 할 일이 무엇이었는가. 퇴계 선생의 다음과 같은 시는 이러한 나의 생활에 큰 감명을 준다.

'청산은 어찌하여 萬古에 푸르며/流水는 어찌하여 주야에 굶지 아니하고/우리도 그치지마라 萬古常靑하라라.'(도산십이곡, 후오곡)

(국어교육과 전임강사)

쉽 팜

계속되는 낭보... "자신감을 갖자"

'항상 좋은 목적을 잃지 않고 노력을 계속하는 한 최후에는 반드시 구제한다' J.W. 피테가 『파우스트』에서 한 말이다. 즉 노력을 하면 안 될 게 없다는 말이다.

최근들어 학내 여기저기서 이 말에 걸맞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선배·학우들의 반가운 소식들이다.

가슴 한 구석에 지방대학이라는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극복할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먼저 작년과 올해 우리대학 국문학과 학우와 동문들이 2년 연속 동아일보와 한라일보 신춘문에 시부분에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특히 고시보다 더 어렵다는 중앙지 주치의 신춘문에 연속당선은 엄청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올해 임용고시 합격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올해 우리대학내의 임용고시 합격수가 총 35명인데 사법계열이 28명이다. 임용고시가 실시되면서 국립사대에 갖고 있던 특권이 사라졌다. 고사가 되기 위해 사대를 지원한 학우들은 대학 4년을 다니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된다. '과연 열심히 하거나 하면 고사가 될 수는 있는가?', '올해에는 도대체 몇 명을 뽑을 것이며 몇 명이 '지원할 것인가?'라는 해결이 없는 물음들 속에서 오늘의 사대 학우들은 때론 진로를 바꾸어 다른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계속

밀고 나간다. 그런데 이번에 수백대의 경쟁률을 재치고 영교 9명, 국교5명, 사교4명, 윤교4명, 과교3명, 수교2명, 상교 1명 등 총 35명이 임용고시에 합격했다. 그리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런 선배들의 노력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후배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는가? 사회교육과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14명을 모집했는데 그 중 2명이 3등과 4등으로 합격하는 등 모집인원이 30여명 이내인 경기도에서 매년 적게는 2명에서 4명까지 합격률에 있어서 후배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고 있다.

또한 산업디자인학과에서는 올해 현대자동차에서 공모한 자동차디자인 공모전에서 우리대학 5개팀이 입상함으로써 타대학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대학 학과중 졸업생 전원이 전공분야별로 실시하는 자격 시험에서 전원이 합격하는 일이 있었다. 바로 수의학과와 식품영양학과이다.

수의학과는 수의사시험에서, 식품영양학과는 영양사 국가자격시험에서 각각 전원이 합격한 것이다.

이런 것들 모두가 노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들이다. 앞으로 더 많은 결실을 보기 위해 우리 학우들은 지방대라는 핸디캡을 던져버리고 자신감있게 도전해야 할 것이다. (順)

기획연재

발전기금조성사업에 박차
대학평가제 대비 예비평가 실시

기획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은 각종 행정업무의 조정과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등을 포함한 학교운영의 총체적 관리부서라는 점에서 대학운영의 핵심이 된다.

대학발전을 위한 기획·조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담당관실의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안)은 올해를 근간으로 미래를 조절하는 우리대학의 방향타가 될 것이다.

우선 주요업무 계획안은 첫째, 대학발전기금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학내출연교수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출연자에 대한 감사제 수여 및 고액 출연자 명단을 각인하는 등의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며 발전후원의 모임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둘째, 발전후원회 활동경비지원 방안 강구를 통한 대학발전 후원회 운영 및 활동에 수반되는 사항을 지원한다.

셋째, 대학평가 인정제에 대비한 사전 준비로써 타대학 사례조사와 예비평가를 실시한다.

넷째, 공청회 개최와 단계별 심의를 통해 운영연구보고서를 심의하여 시설부분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다섯째, 단위사업별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대학운영 방침 및 학사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여섯째, 선상토론회 개최와 기념행사 발권을 통한 개교기념 행사

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일괄제, 대단법인,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관리이외에 각종 통계연보 및 홍보자료집을 발간 할 예정이다.

주요업무 계획안 중 기존 업무인 학사 운영에 관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기획위원회 운영, 홍보책자 발간 등은 지속적으로 하며 이외에 대학발전기금 조성사업에 따른 발전후원회 활동에 적극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기획 담당관실에서는 대학재정 확충을 위한 대학발전후원회 운영 및 활동에 가장 역점을 두고 수반되는 사항들을 최우선적으로 한다.

이에따라 지난 2월21일에는 서 울지역 발전후원회 발족모임을 개최하는 한편, 부산지역 및 일본지역 발전후원회 구성을 위해 설명회 개최 및 추대위원 확정준비로 분주히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듯 기획담당관실이 대학발전후원회 부면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생존권적 차원의 지구력을 강구하기 위함이고, 급변하는 시대상황의 전개속에서 대학재정의 빈곤은 곧 대학교육의 질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 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있기 때문이다.

김인근 담당관은 "내년에 받게 될 대학종합평가와 올해 있을 경영학 계열 학과평가가 급선무이지만 하루아침에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발전기금 조성사업 활성화로 대학재정이 확보된다면 꾸준히 시설설비에 투자할 수 있고 대학내 행·재정적 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鄭)

부서별 사업계획을 듣는다

연한 계획으로 안일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 본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우리 대학내의 주요부서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업계획 및 업무를 중심으로 각 부서를 점검하는 난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각 부서에서 발표한 사업계획들의 실천여부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우리 대학내의 각종 부서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과연 ○○부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대학발전에 역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구태의연한 계획으로 안일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 본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우리 대학내의 주요부서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업계획 및 업무를 중심으로 각 부서를 점검하는 난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각 부서에서 발표한 사업계획들의 실천여부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류은이 씀)

학술연구비 확충에 노력

『교수연구업적』등도 발간예정

연구지원담당관실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대학 본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대학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여 움직이고 우리 대학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연구활동을 지원해주는 부서가 바로 '연구지원담당관실'이다.

이번에 행정개편으로 인해 연구소 통합행정실의 업무가 연구지원담당관실로 모두 옮겨감에 따라 기사가 그곳을 찾았을 때는 새로운 업무처리 등으로 매우 분주한 모습이었다.

연구지원 담당관실의 올해 1년 동안의 사업을 월별로 살펴보자.

먼저 교원의 국제학술회의 참가 및 연구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술진흥 활동지원'의 한 일환으로 △95학술진흥 활동지원지침을 확정(2월, 3월)하고 △각종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지출 지원(2월~12월)하게 된다. 교원들의 연구기회를 확대시켜 주기위한 방안으로 '교원연수'가 실시되는데 △국내교류 교수추천(2월, 4월) △국외배회와 과전교수추천(3월~4월) △전임교원 자체배회 연수(2월~12월)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부응하는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 학술교류 협의회를 구성(3월)하고 국제협력관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

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교류 업무개선(2월~4월)에 힘쓰고 있다.

지방중소기업이 지역 대학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기술혁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역 컨소시엄'이 곧 설치(1월~8월)되며, 각 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 학술연구 조성비(2월~12월) △한국 학술진흥재단 연구비(2월~12월) △한국과학재단 연구비(1월~4월)등을 각각 신청하고 있다.

한편, 올해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연구지원 편람'을 발간(3월~11월)할 계획이고 '교수연구업적'을 약 8백부 발간(1월~2월)한 상태이다. 또한 연구지원담당관실에서는 전문학술지를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학술지 평가기준을 확정짓고(1월~3월) △전문학술지 목록을 작성(1월~11월)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연구소 운영평가가 실시되는데 △연구소 평가지침이 마련돼 있고(2월~3월) △연구소 운영평가(3월~12월)가 실시된다. 현재는 인문과학연구소와 체육과학연구소 설치업무에 분주하다.

올해들어 더욱 업무가 많아져 바빠진 연구지원담당관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우리대학 연구발전에 이바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順)



교수동정

▲서두옥(행정처장, 어업학과 교수)=지난 3월13일부터 14일까지 해양과학공동연구소 주최로 부산수산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 심사평가회의에 참석.

▲조성비(중식학과)부교수=서울수산청 주최로 3월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수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심의회전문위원회에 참석.

▲이정재(중식학과)교수=지난 2월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중앙교육연구원에서 열린 '94년도 지역개발연구과제학술세미나'참석.

▲양영훈(축산학과)조교수=지난 3월2일부터 3일까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주최로 수원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가축개량 총괄제도의 조기정착·발전방안 심포지엄'에 참석.

▲김상조(국어국문학과)부교수=지난 3월1일자로 국어국문학과 학과장 및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주임교수에 임명.

▲정대연(사회학과)교수=지난 3월1일자로 사회학과 학과장으로 임명.

공연·전시

'하얀박꽃' 공연

칼리오페, 16일 중강당

고전음악동아리 칼리오페(회장

강지영 정보공 3)가 주최하는 '제26회 하얀박꽃'공연이 오는 3월16일 오후6시에 법정대강당에서 열린다.

신입생 환영음악회를 겸한 이번 공연에서는 ▲혼성합창 'oh happy day', '환혼의 노래' 등 8곡 ▲여성합창 '안개비' 등 3곡 ▲Record Concert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중 제1악장 등을 선보이게 된다.

발간소식

인대 편집위 '세상'창간

인문대학학생회 신문 '세상'이

지난 3월13일 창간됐다.

인문대편집위원회(편집위원장 이승미 일어일문 3)에서 발간한 '세상'창간호에는 각종보도를 비롯해 서 울메트로에코의 대중문화 분석, 비너오드름, 인문대학학생회장·부회장 인터뷰 등이 실려있다.

이 신문은 인문대학 학생회 사업의 일환으로 학기마다 2번씩 발간될 예정이다.

『제대사회과 교육』발간

사회교육과(학회장 변진영 4) 학회지 『제대사회과교육』제12집이 지난 2월말에 발간됐다.

이책에는 '한국관광개발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제주관광자원개발의 방향 △제주지역경제의 발전방향 △제주관광도산품의 개발 △지역개발과 관광 등 4개의 논문과 △주차도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이 실려있다.

발전기금 305만원 기탁

14일 제주MBC재직동문회서

제주문화방송에 재직하는 동문 74명이 지난 14일 모교발전기금으로 3백5만원을 우리대학에 기탁했다.

제주 MBC 재직동문 이문교 총무국장(법학과 10회)의 73명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비율이 줄어들게 되는데다 대학의 욕구수준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한 모교의 어려움을 덜어내 대학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월분 봉급에서 기금을 모아 지난 3월14일 교장관총장에게 전달했다.

모교 발전기금 모금에는 제주MBC 재직동문 76명중 74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모교애를 보여 주었다.

제주MBC 재직동문들은 지난 92년에도 발전기금 3백만원을 모금하여 기탁한 바 있다.

기성회계 예산집행 방법 개선

본부 처·실에 분임계약관·출납관 임명

경리과(과장 김남식)에서는 정부의 대조직개편에 따라 95년 3월1일부터 본부 처, 실 및 대학원에 분임 계약관 및 출납관을 지정하는 등 기성회계 세출예산 집행방법을 개선했다.

이는 종전까지 1백억원이 넘는 방대한 기성회계 예산을 사무국 경리과에서 집중 집행함으로써 업무량의 과중으로 인한 예산집행 지연과 수요부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사지원 사무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써, 95학년도부터 본부 처·실별 및 대학원에서

자제적으로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기성회계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미 83년부터 각 단과대학 및 도서관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기성회계 모든 예산을 자체 집행해 왔다.

이번에 개선했던 주요내용 ▲분임계약관 관직 지정: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연구실장, 대학원장.

▲분임출납관 관직 지정:교무과장, 학생과장, 기획담당관(이상 처·실별 선임부의장) 및 대학원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개최

총여학생회(회장 이봉실 농경제 4)에서는 제87주년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3월8일부터 10일까지 학생회관과 법정대 중강당 등지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벌였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문구를 내걸고 총여 및 3개 단과대학학생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

한 이번 행사에는 초청공연·영화상영·전시회 등이 마련됐다.

▲총여학생회=10일 법정대 중강당에서 '노래빛 사랑' 초청공연 ▲경상대=8일부터 10일까지 백두관 시청각실에서 '조이클럽'등 4편의 영화상영 ▲농과대=백두관 1층 로비에서 먹거리판매 ▲자연대=8일 자연대에서 책 판매.

이번 학기부터 봉사장학금 폐지 “학생회간부·교직원자녀 특혜근거 없다” 작년 교육부감사서 시정 지시

학생활동 장려 차원에서 학생회 간부들에게 지급돼오던 봉사장학금과 교직원자녀에게 지급됐던 장학금이 지난해 11월말의 교육부감사에서 지적됐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 학기부터 전부 지급중단됐다.

봉사장학금은 학생회 간부 및 학내인원사 등에서 활동하는 학생들(매학기 총학생회 11명 등 69명) 가운데 일정자격을 갖춘 학생과 교직원 자녀에게 지급돼 왔으나, 지난해 11월말 교육부 감사결과 ‘학생회 간부와 교직원자녀라고 하여 차별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토록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은 이를 토대로 장학지급규정을 개정해 지난 1월 16일 열린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회 간부와 교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송창윤(행정4) 총학생회장은 “학생회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어 학생회활동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측에서는 그동안 봉사장학금이 지급됐던 학생회 간부의 경우 활동성이 인정된 학생에 한하여 각 단과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내 언론사 학생들에게는 근로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제, 송창윤(행정4) 총학생회장은 “학생회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어 학생회활동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측에서는 그동안 봉사장학금이 지급됐던 학생회 간부의 경우 활동성이 인정된 학생에 한하여 각 단과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내 언론사 학생들에게는 근로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임을 밝혔다.



◇교수협의회에서는 지난 10일 대의원총회를 갖고 ‘국립대학설치법개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생활영어등 특강 실시

외국어교육관 28일까지 신청자 접수

외국어교육관(관장 양경주) 영어영문학과 교수)에서는 4월 3일부터 30일까지(공휴일제외) TOEIC·TOEFL 등 95학년도 영어특강을 실시한다.

수강신청접수는 3월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외국어교육관 행정실로 하면 된다.

아침반(오전 7시30분~8시30분)에서는 TOEIC·TOEFL 등과 취업, 진학, 외국유학 등에 관련된 강의가 이루어지고 저녁반(오후 5시30분~6시30분)에서는 생활영어에 중점을 두어 강의가 이루어진다.

아침반강의는 김원외(외국어교육관 특별연구), 권영근(영어영문학과)교수가 저녁반은 김재원(외국어교육관 특별

현안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교수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결정

지난 3월10일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교수협의회 대의원 임시총회’에서는 우리대학의 현안문제점들을 주로 논의하고 대학의 발전적 차원에서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32명의 대의원 23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국립대학교 설치법’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주로 논의되었다.

먼저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교수·학생·사무과가 행정실로 통합되어 종전 교수·학생·사무과장이 분담하던 업무를 행정실장(교육행정사무관)이 총괄 운영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었다.

그 문제점으로 종전에 분담되었던 업무가 1인에게만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 업무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대학교육기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수업무도 행정사무관이 관장하게 되어 원활한 교수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외 현안문제도 △최근 일 부보직인사 행정에 있어 일관성 없이 해임과 재임이 반복되는 문제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직원의 학과배치에 있어 2개학과에 1명씩 배치됨에 따라 2개학과 업무의 1인이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폐단 등의 문제점이 논의됐다.

교수협의회(회장 박형신) 과 학교교육과 교수)에서는 이상의 문제점을 대학당국에 인식시키고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교수협에서는 올해 대폭 인상된 기성회비가 학생들의 복지향상과 교수·직원의 처우개선의 측면에서 어떠한 비율로 배분되고 편성되었는지 조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교수협의회(회장 박형신) 과 학교교육과 교수)에서는 이상의 문제점을 대학당국에 인식시키고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교수협에서는 올해 대폭 인상된 기성회비가 학생들의 복지향상과 교수·직원의 처우개선의 측면에서 어떠한 비율로 배분되고 편성되었는지 조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교수협의회(회장 박형신) 과 학교교육과 교수)에서는 이상의 문제점을 대학당국에 인식시키고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교수협에서는 올해 대폭 인상된 기성회비가 학생들의 복지향상과 교수·직원의 처우개선의 측면에서 어떠한 비율로 배분되고 편성되었는지 조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교원임용고시에 35명 합격

교직과 발표보다 16명 더 늘어나

95년도 교원임용고시에서 우리대학 출신 가운데 35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3월초 각 학과 사무실을 통해 재확인한 결과, 지난 3월8일자 본지에서 올해 교원임용고시 합격자는 19명(사범대 교직과 자료)이라고 보도했던 것과는 달리 16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각 학과의 지원지역별 추가 합격자들은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음악:양선희(음악90졸)·진영인(음악95졸) △미술:양승우(미술87졸)·고용

완(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이로써, 전체 합격자를 집계해 보면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24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지역 8명, 경남지역 2명, 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원(미술91졸)·부영아(미술91졸) △수학:고연순(수학92졸) △체육:안승규(체육95졸) ▲경기지역=△사회:김정성(사교91졸) △영어:강해숙(영교94졸)·박점임(영교94졸)·강은정(영교94졸)·홍효심(영교94졸) △윤리:김희경(윤교89졸)·문임정(윤교93졸) ▲경남지역=△사회:김미진(사교92졸)·명동선(사교94졸).

1학기중 특별강의 64회 실시 수업 내실화·학술및 정보교류차원...각 분야 전문가 초청

95학년도 1학기에는 62개학과에 총 64건의 특별강의가 실시된다.

수업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41조에 의거, 각 학과관련 수업은

영의 내실화와 학술 및 정보교류를 위해 해당분야의 권위자 또는 국내·외 저명인사 초청특별강의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55개 특별강의가

실시됐는데 비해 올해는 작년보다 9개강좌가 늘어났다.

각 단과대학에서 신청한 특강강좌수를 보면 △인문대 현대미술의 흐름과 비평 등 3건 △법정대 생명공학의 발전과 2건 △경상대 세계화시대에 적합한 한국경제의 진로 등 1건 △사범대 현대 영미문학에 있어서 페미니즘 동향 등 4건 △공과대 국제식량문제와 우리의 농업 등 6건 △해양대 한국어업과 세계어업의 동향 등 5건 △자연대 원자핵속에 깊이 속박된 파이온 상태 등 8건 △공과대 과학류 가공산업의 현황과 미래 외

■ ‘삼다텔’을 찾아

관광·지역생활정보 전국에 무료 제공
지역정보화의 선두주자로 각광 받아

현대는 정보화시대로 다양한 정보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요즘은 생활에 필요한 지역의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지역정보망 구축이 절실한 때이다.

이러한 지역적 수요에 부응해 우리지역에도 몇몇 뜻있는 공학도들이 컴퓨터시스템을 개발, 우리지역사회를 정보의 도시로 만들려는 의욕적인 움직임이 있어 찾아 나섰다.

공과대 A동 3층, 7331 강의실이 그 연구 현장이다.

몇평 안되는 좁다란 강의실에 Workstation 1대, 컴퓨터 3대, 터치스크린 1대, 회의용 탁자 하나가 연구시설의 전부이다.

아직은 미흡하기 그지없는 여건이지만 컴퓨터모니터에 모여 앉아 전자계산기에 뜬 소식들을 보며 의견을 나누는 모습에는 그들의 원대한 꿈만큼이나 열의가 돋보였다.

통신공학과 임재운 부교수와 학생들은 지난 12월 ‘삼다텔(samdattel)’이라는 제주지역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 현재 전국적으로 4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

다.

삼다텔은 지난 93년 제1회 지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받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시스템개발과 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93년 설립초기에는 제주지역관광정보시스템으로 단지 관광객을 위한 여행안내시스템에 단지 관광객을 위한 여행안내 시스템에 지나지 않았으나 현재는 전국 어디서나 관광정보는 물론 지역생활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있다.

구체적으로 학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삼다텔 주메뉴를 소개해보자면 제주종합관광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베이스화한 문자정보시스템과 Video text system이 있다. 우리지역이 관광지라는 특이성을 고려해 관광객들이 여행하기 전에 사전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관광지별 교통망, 숙박시설, 물가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관광안내시스템이다.

다음으로 지역생활정보를 컴퓨터모니터만 보고도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삼다텔 생활정보’가

있다. 여기에는 가전제품이나 방구합, 구인·구직 등 알뜰시장정보와 우리지역 문화행사 관련 정보, 의료·건강 정보, 자동차 교통정보 및 민원정보, 금융정보, 가정법률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차세대언론매체로 불리는 삼다텔 컴퓨터통신 전자계산기에는 삼다텔 사용 중 의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운영자에게 바람 △나도한마디 △도민여론실 △사람을 찾습니다 △축하합니다 등 여론수렴창구가 열려있다.

그러면 삼다텔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삼다텔로 들어 가려면 먼저 모뎀이 장치된 컴퓨터를 전 화선과 연결한 후 통신프로그램을 이용해 ‘01410’에 접속시킨 뒤 ‘17번’을 누르면 지역통신망으로 들어

송지나와의 만남

80년대 우리사회의 아픔을 영상화했던 「모래시계」와 해방전후사의 민족의 아픔을 그렸던 「여명의 눈동자」의 작가로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는 송지나(36)씨가 지난 13일 초청강연자 우리대학교를 방문했다. 다음은 법정대 증강당에서 강연후에 있었던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모래시계」를 쓰게 된 동기는?

“저는 78학번(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으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 다니는 동안 대통령이 세 번 바뀌었지요. 잦은 휴강으로 대학을 1년여 동안 다니지 못했어요. 재학중에 특히 여학생들이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과연 어디에 살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당면하게 된 거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도피로 외국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이 나라를 잊고 싶어서 떠났던 여행에서 이 나라의 소중함을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그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소위 신세대들이 갈 방향을 모르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 지금 20대들에게 뭔가 느끼게 하고 싶었는데, 30대들이 오히려 더 좋아한 것 같아요.

▲「모래시계」를 보면 「광주항쟁」이나 「삼청교육대」 등 지금까지 방송에서 금기시됐던 소재를 다뤘는데 그 의도는 무엇인지요?

“상식의 얘기를 하다보니 ‘광주항쟁’이나 ‘삼청교육대’ 얘기가 안



△임재운교수를 중심으로 구축된 정보통신시스템 ‘삼다텔’은 회원 4천여명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정보와 생활정보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간다. 그 곳에서 ‘삼다텔 92007’로 들어가 명령어에 따라 삼다텔정보를 이용하면 된다.

설립초기부터 충운영을 맡아 담당해오고 있는 임재운 부교수는 “아직은 동호회 수준의 정보망이나 지역정보화에 일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순수민간차원의 지역정

보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다”며 현재의 운영상황을 밝힌다.

그리고 “우리도는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도내 컴퓨터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역정보망 참여에 대한 인식제고를 당부했다. (김정임 기자)

“작가되려면 사회 모순점
 꿰뚫어 보는 안목 길러야”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것들은 모두 상식에 어긋난 행동들이었는데 그런 일들을 그 시대 고위층들이나 대통령이 단행했어야. 처음 드라마에 나올 때는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시대를 얘기하면 서 그 부분을 뺄 수가 없었어요. 시청률이 좋으면 끝까지 가고, 나쁜 중간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시청률이 좋아 끝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광주항쟁’을 다루기 시작할 때 갑자기 신문에서 너무 떠들어 처음에는 신

문을 너무 떠들어 처음에는 신문을 쓰고, 남작자 자빠서 자는 얘기를 쓰는 시대는 지났지요. 이제는 공부를 해야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행히 다큐멘터리를 오래 해봐서 취재를 하고 공부를 하는게 자신이 있거든요. 「여명의 눈동자」같은 경우도 자료를 많이 읽었고 4·3부분도 제주도 내려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쓴 거예요. ▲방송작가의 역할과 책임이 때

마가 시작되면서 아픈 과거를 들춰내어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업적이지 않으려면 첩관 갖다놓고 카메라 앞에서 강의하는 수밖에 없어요. 신문에서 ‘드라마가 너무 폭력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역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서 ‘광주항쟁’과 ‘삼청교육대’를 다뤄 시청률이 높아졌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보도에는 참기 힘들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쓰면 시청률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솔직히 가벼운 사람애기를 써야 시청률이 높아지는 추세잖아요.

▲「여명의 눈동자」의 경우 경험한 시대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썼는지요?

“=이제는 작가들이 자기 경험에 의해 글을 쓰는 시대가 지났다고 봐요. 소설·시·드라마·영화 어느 장르를 쓰든 연애를 해봐서 연애 얘기를 쓰고, 남작자 자빠서 자는 얘기를 쓰는 시대는 지났지요. 이제는 공부를 해야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행히 다큐멘터리를 오래 해봐서 취재를 하고 공부를 하는게 자신이 있거든요. 「여명의 눈동자」같은 경우도 자료를 많이 읽었고 4·3부분도 제주도 내려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쓴 거예요. ▲방송작가의 역할과 책임이 때

동문발언대

광고 유감



김철호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현대사회에서 대중은 이 정보들을 합리적으로 비판하여 취사선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매스 미디어의 입장에서 이런 정보들을 전달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비판하여 볼 시간적 여유없이 대량 생산과 빠른 전달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사회의 저변에는 대중성과 신속성이란 속성이 깔려있는 것이다. 대중민주주의, 대량생산과 소비, 대중문화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속성을 대변해주고 있는 대중사회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상업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광고 정보가 우리들에게 가치관의 혼란을 심어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는 광고 문안도 기실 따지고 보면 오류의 명제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침대가 인체공학적으로 매우 훌륭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측면을 소비자에게 강조하다보니 사실이 아닌 명제를 그대로 제시하여 대중들의 수요욕구를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착오와 혼란에 가장 민감하게 빠지는 계층은 바로 순수한 세대, 곧 청소년들인 것이다. 미래사회를 짊어질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면 자성해야 할 일이 다.

‘화이트 데이날 그 애가 내 손

에 꼭 쥐어준 건 내가 가장 받고 싶었던 빔빔 000. 우린 빔빔 000으로 사랑을 확인했답니다.

광고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수단 방법을 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이쯤 되고보면 우리 어른들이 지나치지 않았나 하고 반성해 봐야 할 일은 아닐는지. 백보물러서서 이런 내용들은 구매욕 자극을 위하여 그랬다고 치자.

‘아직도 영어 단어를 쓰면서 외우십니까?’ 이 광고 문안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인간이 기억을 파지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또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에는 듣고 보는 것으로도 이루어낼 수 있지만 직접 손으로 글을 써보고 몇번이나 수정하여 보는 데서 더욱 향상된 보릴 수가 있다. 글을 쓴다는 노력은 학문의 알파요 오메가로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만약에 영어 단어를 전자 수첩을 가지고 버튼을 눌러서 알았다고 하거나 컴퓨터 워드로 처리할 수 있거나 어떤 문장을 지을 때에는 손으로 써보고 되고해보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쓰고 편집하는 일은 꼭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혹시 전원이 나갔을 때, 바이러스나 해커가 침투했을 때, 또는 컴퓨터가 없을 때에는 밖에 부딪치게 된다. 기계의 주인이 되어야 할 우리 인간이 기계의 노예로 전락하고가는 소의 현상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서도 나는 ‘아직도 영어 단어 뿐만 아니라, 문장도 쓰면서 읽어보고 하는 것’을 오래 오래 권장하고 싶다. 결코 학문의 길에는 왕도가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중앙여고 교사)

아라시단

간이역에서

김은영 (국어문화학과1)

조촐한 차림새로 한발 디더 두눈을 감아본다. 마구 내던진 나의 몸놀림은 어느새 보이지 않았고 보이지 않음으로써 종착역에 이른 모습이 되었다.

그 어두운 터널을 뚫고 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나는 본다.
멈춤이라는...

고향대 옥신 풍기는 아낙네들의 사투리. 손수건 적시며 군에 보내는 가엾은 산처녀의 울음 소리.

떡판 앞에 쭈구리고 앉아있는 할멈의 갈갈한 모습. 서울간다는 친손주 마중에 손흔드는 할아범의 얇은 미소를...

다시 내딛는다.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축축함을 맛보며 한발한발 내딛는다.

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송지나씨는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작품을 쓰는지요?

“=드라마를 쓰길 원하는 후배들에게 저는 항상 글재주보다 품성을 먼저 길러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품성과 더불어 지니고 있어야 하는건 사회적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거창한 이데올로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보다 사회를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안목,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구나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안목이 필요하다고 봐요. 드라마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작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제기 정도죠. 드라마에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살아야라고 직접 가르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드라마를 쓸 때 제 역

사관이나 이데올로기 등을 지워버리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제주도를 무척 좋아하게 된. 고교시절을 여기서 보냈던 게 작가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남들 다 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어요. 남들 안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제가 사춘기를 여기서 보낸 것이 그런 성격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방대라는 콤플렉스를 갖고 계실까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어느곳 어디라도 찾아보면 다른 곳보다 유리한 분야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것을 빨리 찾으시길 바래요. (강정순 기자)



최고의 고객만족

화학강국

첨단기술력으로 化學強國을 실현하는 일-
지금, LG가 하고 있습니다.

LG화학CU는 유전공학, 정보전자소재, 고분자화학, 정밀화학분야의 첨단 연구개발과 석유화학, 산업건자재, 생활건강, 정밀화학, 의약품 등 다양한 사업영역을 통해 최고의 고객만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16개의 국내외 합작사 및 해외현지법인 등 사업의 현지화를 통하여 세계 초일류 화학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화학CU LG화학·LG석유화학·LG MMA·LG얼라이드시그널·LG오렌스코닝·LG실트론